

미래 지향적 연구에 매진

한 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산업 체제 조정 정책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 원자로 계통 설계 사업, 핵연료 설계 사업, 중수로 핵연료 제조 사업을 각각 관련 산업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97년은 미래 지향적 연구 중심의 정부 출연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 자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핵연료 국산화에 성공하고 한국형 표준 경수로 개발이란 쾌거를 올린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더 기여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사업 목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97년부터 액체 금속로 개발의 실질적인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요소 기술 개발과 신기술 동향 파악 등 나름대로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11년까지 실증로를 완성한다는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고, 금년부터는 개념 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지역 난방이나 해수의 담수화에 활용될 중·소형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이와 관련한 대규모 국제 회의인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심포지엄」을 국내외 3백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하나로는 95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지난해 실질적인 운전 성능 시험을 마치고 금년에는 정상 운전엔 진입하게 된다.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등 원자로 이용 시설과 각종 장비도 대부분 갖추어진 상황이므로 하나로의 활용성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생명 공학 연구 분야는 국민 보건 향상과 관련 산

업 발전에 영향이 큰 만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피부암과 간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홀뮴-166 방사성 치료제를 개발하여 민간 기업과 상품화 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는 이 분야는, 금년에는 구체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 상품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안전 기술 개발 분야나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 등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새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과제들이다.

한편 97년은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가 사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해이므로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 신소재·로봇·레이저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원자력 분야 응용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연수원은 99년 완공 목표인 국제연수관의 설계·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